

## 챗GPT의 아이러니 번역 활용 가능성 고찰

박수정 · 최은실  
(부산외대)

### 1. 서론

최근 어디를 가도 챗GPT 이야기가 한창이다. 증권사는 물론 유명 유튜버나 블로거들까지 앞다퉈 챗GPT에 대한 지식을 퍼 나른다. 이제 유명 아이스크림 광고마저 챗GPT가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뱅크오브아메리카 분석가들은 최근 연구노트에서 챗GPT와 같은 기술의 발전이 또 다른 ‘아이폰 순간(iPhone moment)’이 될 수 있다고 썼다. 아이폰이 스마트폰과 모바일 앱의 폭발적인 사용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챗GPT 기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파파고와 구글 트랜스레이터의 기능 개선 속도만으로도 놀라기에 충분했다면 챗GPT는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과 무기력을 느끼게 한다.

통번역 분야에서도 온라인상에서 통번역과 관련된 챗GPT 경험담이 올라오면서 향후 통번역사들의 일거리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1월 구글 번역이 기계번역의 새 장을 열 당시에도 통번역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창조적인 성과물을 내야 하는 분야에서는 아직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Open AI

사의 GPT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2021년 2월에 발표된 GPT-3 모델을 사용한 소설 쓰기를 주제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GPT-3 모델은 다양한 소설 장르와 스타일에 대한 텍스트 생성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또한 2021년 출시된 DALL-E라는 AI 모델은 문장을 입력하면 해당 문장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yellow shoes with a cube pattern”과 같은 문장을 입력하면 이에 대한 이미지가 생성된다. 이와 같은 AI의 발전으로 인해 예술, 문학,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창조 활동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GPT-3.5는 2021년 9월까지의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로 약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으며, 넓은 범위의 주제에 대해 대화를 수행할 수 있다. GPT-3.5는 기존 모델보다 뛰어난 창의성과 문맥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의 질문이나 입력에 따라 자연어로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GPT-3.5는 사전 학습된 모델로, 실시간으로 신규 정보를 학습하거나 최신 동향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GPT-4 모델은 더 정확한 답변 생성, 더 많은 지식과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한 대화, 사회적 문맥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창의성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챗GPT는 대화형 AI다. 즉,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구현된다. 이와 관련해 질문자가 가진 지식이나 질문의 의도에 따라 챗GPT의 답변이 구성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미국 솔크생물학 연구소가 소개한 테렌스 세즈노스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샌디에이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질문이 전제하는 사실에 따라 챗GPT의 답변 양상이 달라진다고 한다. 세즈노스키 교수가 챗GPT에게 “사람이 영국 해협을 걸어서 건넌 시간의 세계 기록은?”이라고 묻자 “영국 해협을 걸어서 건넌 세계 기록은 18시간 33분입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람은 영국 해협을 걸어서 건널 수 없지만 이처럼 엉뚱한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세즈노스키 교수는 “만약 질문에서 영국해협을 ‘수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으면 다른 답변이 나왔을 것”이라며 “챗GPT의 답변은 질문자의 지식수준이나 의도에 따라 쉽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가 해내지 못하는 영역의 번역이라고 간주되고 있는 문

학 번역을 챗GPT는 각 층위에서 얼마나 원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번역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특히 본 연구는 독자들이 특정 언어권에 대한 맥락적 지식이나 이해가 있어야 파악할 수 있는 아이러니 표현에 대한 번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이러니 번역의 난이도를 이해할 때 기계와 AI가 전문을 번역하도록 하는 것이 옳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부 텍스트를 발췌하여 번역 작업을 하고 비교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작품의 특성상 어휘나 배경이 현대와 다르므로 추가 정보 입력이 가능한 AI번역의 경우 텍스트의 배경지식을 제시하여 번역하도록 하였다. 다만 챗GPT의 번역 능력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자 챗GPT가 질문자의 지식이나 의도를 반영하는 특성을 바탕으로 원문 텍스트에 대한 정보, 즉 문화소(단어 층위), 아이러니(문장 층위), 작품 해설이나 줄거리, 인물 설명(텍스트 층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챗GPT가 맥락을 얼마나 이해하고 아이러니를 살려 번역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챗GPT의 아이러니 번역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GPT-3.5모델을 이용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아이러니와 번역

아이러니란 하나의 명제가 표면상의 의미와 해당 명제를 작성한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간 차이가 생길 때 발생한다(Kamyanets 2017: 263). 따라서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표면적 의미를 맥락상 의미 혹은 실제 상황과 비교해 봄으로써 아이러니의 존재 여부를 추론해볼 수 있다(Hatim and Mason 2010: 99). 이때 출발어권 독자와 도착어권 독자들의 인지적 환경(cognitive environment)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사는 이를 고려해서 번역해야 하며 작가가 의도하는 아이러니를 독자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추가적인 실마리(clue)를 제공할 수 있다(Hatim and Mason 2010: 93-99). 즉, 아이러니를 번역할 때는 독자가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아이러니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Hatim and Mason 1990: 100).

하지만 독자가 다소 노력을 해서 정보를 처리하려 하더라도 독자가 아이러니를 추정하고 유추할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한미애 2015: 206). 아이러니는 작가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도를 찾아 나갈 수 있게 만든 장치여서(evaluative device) 번역 역시 그 기능을 충실히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Kamyants 2017: 264). 적합성(relevance) 원리에<sup>1)</sup> 따라 독자들이 아이러니를 파악하고 내포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Wilson and Sperber 2012: 88). 번역사가 충분히 맥락을 파악하여 작가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사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내포적인 경우에는 작가가 서술한 그대로를 번역하고 독자가 그 표면적 의미로부터 아이러니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Moneva 2001: 216).

이와 같이 아이러니에 대한 번역은 크게 독자가 정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노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번역할 것인가, 노력은 들지만 아이러니를 독자로 하여금 추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의 두 가지 전략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 전략에 대한 평가보다는 표현 자체에 중점을 두고 기계번역의 번역을 분석했다.

## 2.2 기계번역의 문학 번역

기계번역을 활용한 문학 번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중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김혜경과 윤소영 2019; 마승혜 2018; 송연석 2018; 이동환 2017; 이준호 2019; 이창수 2021; 전해진 2019; 최운영 1996).

그러던 중 최근 연구에서는 기계번역의 문학번역 적용에 대해 닫힌 결말보다는 긍정적이고도 열린 결말을 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진(2020)은 문학번역에서 기계번역을 오역과 오류가 난무하고 가능성이 없는 선택지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세분화된 조건에서 각각의 번역 엔진이 가지고 있는 특

1) 한미애의 논문을 기반으로 ‘적합성’으로 번역했다. 적합성 이론에 따라 독자들은 아이러니를 인지한 후 아이러니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찾게 된다(Kamyants 2017: 263).

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기계번역의 가능성과 확장성을 문학 번역 영역으로 편입시켜 문학 번역 과정에서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이 공존 및 협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김영희(2021)는 문학 번역을 이야기하면서 기계번역이 어느 정도는 인간번역의 보조 수단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기계번역의 비중 혹은 역할이 더 확장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승연, 윤미선, 최은경(2022)은 기계번역의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수요가 현장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계번역을 활용한 번역 수업 역시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논문에서도 챗GPT와 같은 AI번역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챗GPT가 2022년 11월에 출시되고 현재 기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챗GPT의 번역까지 확장하여 기계번역의 능력의 현재를 점검하고 AI번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 3.1 텍스트 선정

챗GPT의 아이러니 번역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우선 한미애(2015)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텍스트와 분류법을 활용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독자의 인지적 환경이 작용하여 독자마다 다르게 아이러니를 인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아이러니라고 간주되어 있는 ST를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체계적인 구성에 따라 번역문을 분석하기 위해 한미애(2015)가 사용한 뮤엑(Muecke 1970)의 아이러니 분류법을 참조하여 “현실과 외관의 대조, 자신에 찬 무지나 순진의 요소, 거리감의 요소, 미적 요소”에 따라 번역 결과를 비교하였다. 첫째, 현실과 외관의 대조(the contrast of reality and appearance)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러니의 특성으로, 아이러니 효과를 노리는 작가가 어떤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현실과는 다소 다른 상황을 언급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아이러니이다(Muecke 1970: 30). 둘째,

자신에 찬 무지나 순진의 요소(the element of innocence or confident unawareness)를 활용한 아이러니에서는 아이러니를 일으키는 화자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한미애 2015: 185). 셋째, 거리감의 요소(the element of detachment)를 이용한 아이러니에서는 아이러니를 만들고 있는 화자가 스스로를 관찰자라고 의식하면서 아이러니 효과를 내고 있다(한미애 2015: 186). 마지막으로 미적 요소(aesthetic element)를 통한 아이러니는 언어적 특성을 활용한 아이러니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구어체 서술을 들 수 있다(나병철 1998: 200).

분석에 활용된 번역본의 경우 한미애가 소개한 채만식의 소설 『치숙』(1938)의 두 가지 번역본 중에서 논문 내에서 한미애(2015)가 더 나은 번역이라고 평가한 Bruce Fulton과 Ju-Chan Fulton의 번역본인 ‘My Innocent Uncle’(2005)만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치숙』은 비난받을 인물이 비난받지 않을 인물을 비난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는 오히려 독자가 비난받을 인물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도록 하여 아이러니의 효과를 높인다. 뿐만 아니라 서술자의 개입과 회화 화가 드러나는 작품으로, 풍자의 효과를 높이는 장치가 풍부하여 아이러니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작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상 이해하기 쉬운 언어적 아이러니만 비교 대상으로 삼았으며, 아이러니 분류의 세 번째인 거리감의 요소를 잘 나타내는 언어적 아이러니를 포함한 채만식의 『태평천하』(1938)와 번역본인 천경자의 ‘Peace Under Heaven’(2003)도 연구에 포함시켰다. 기계번역과 AI번역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어가 아닌 두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본 연구의 초점이 아이러니 번역 비교에 있으나 현재 한국문학의 아이러니를 영어 번역과 비교한 사례가 드물고,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한미애(2015)의 논문이 두 작품에서 아이러니에 해당한다고 뒷받침하는 텍스트를 제공한 까닭이다. 단,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번역 툴인 파파고와 구글 중에서 구글 번역만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한영번역 시 파파고에서 누락과 의미 오류가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났고<sup>2)</sup> 두 기계번역 간 오역 사례 분

2) 파파고는 ST-1의 ‘목에 풀칠하다’를 ‘grazes her throat (목에 풀을 먹이다)’로 번역하고 ST-2의 주요 표현을 누락했으며, ST-3의 ‘죄선말’을 ‘anything wrong(잘못된 것)’으로, ‘아이를 버려놓거나 꼭 알맞다’는 ‘It’s just right to abandon a child(아이를 버리는 것이 맞다)’로, ST-4의 ‘짜 찢을 년’을 ‘his daughter-in-law Ko, who was going

석으로 넘어갈 소지가 있어 구글 번역의 결과만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애 (2015)는 원문과 인간번역을 비교하였으나 본 연구는 기계번역과 AI번역까지 비교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겠다.

### 3.2 연구 설계 및 실행

우선 인간번역은 TT(H), 구글 번역은 TT(G), 챗GPT 번역은 TT(GPT)로 구분하여 제시했고, 챗GPT 번역을 위해서 “한영번역 요청”이라고 입력한 후 원문만 계속 입력하여 번역물을 추출했다. 번역 중인 챗GPT 화면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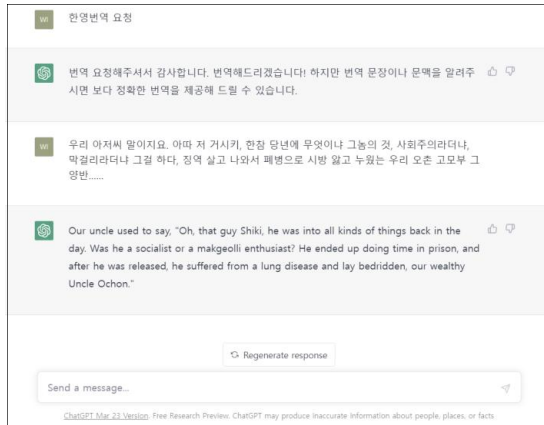
챗GPT가 초벌 번역을 수행한 이후에는 앞서 제시된 것처럼 단어 층위, 문장 층위, 텍스트 층위에 걸쳐 원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마리를 챗GPT에 제공해주고 번역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마리는 크게 단어 및 문장 층위와 텍스트 층위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제공되었고, 1차 실마리가 제공되고 나서 수정된 번역본이 나온 후 연달아 2차 실마리를 제공했다. 예문별 실마리 내용은 챗GPT 번역이 나와 있는 표의 왼쪽 열에 제시하였다.

기계번역은 원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정보 제시가 불가능하고 에디팅을 통해 원문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챗GPT는 추가 설명과 맥락 제시가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번역 품질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먼저 아무 정보가 없는 원문만 입력하여 기계번역과 챗GPT번역 결과를 얻었으므로 두 가지 툴의 번역 품질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추후에 챗GPT에 정보를 제시하면서 나온 번역결과를 비교함으로써 AI번역 활용 방법을 살펴봄과 동시에 AI번역의 결과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to tear her apart(갈기갈기 찢으려던 머느리 고씨)’로, ST-5의 ‘쌍판대기’는 ‘twin-plate (쌍판) stand(대기)’로 오역했다.

〈그림 1〉 번역 중인 챗GPT화면



## 4. 분석 결과

### 4.1 현실과 외관의 대조(언어적 아이러니)

우선 현실과 외관의 대조를 이룸으로써 언어적 아이러니를 구현하고 있는 구문을 살펴보겠다.

〈표 1〉 번역 비교 1(ST: 치숙)

ST-1	우리 아주머니가,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어질고 얌전해서 <u>그 알뜰한 남편 양반</u> 받드느라 샅바느질이야, 남의 집 품빨래야, 화장품 장사야, 그 칩살스런 벌이를 해다가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지요.
TT-1(H)	Thank God for my aunt. She's so kind and gentle. She does piecework sewing, goes to other people's houses and does their wash, sells cosmetics — all so she can serve <u>her dear husband</u> . But what she makes from such miserable work is barely enough for them to scrape by.
TT-1(G)	My aunt, but that aunt, is benevolent and well-behaved, so she pays for <u>her thrifty husband</u> by sewing, doing laundry at other people's houses, and selling cosmetics.

TT-1(GPT)	My aunt, still she had to do odd jobs to support <u>her frugal husband</u> , who was quiet and well-behaved. She did laundry for other households, sold cosmetics, and barely scraped by, filling her throat with a bitter taste.
-----------	---

『치숙』에서 아주머니는 20여 년 동안 소박을 맞았지만 아저씨의 옥바라지를 위해 상경한 후 샅바느질로 단칸방을 얻어 살면서 출소한 남편을 보필하는 인물이다. 서울과 동경에서 공부를 했던 아저씨는 이제 전과자 신세가 된데다 병까지 얻은 채 여전히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려는 생각뿐이다. 아주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화자가 아저씨를 알뜰하다고 표현한 것은 현실과의 대조를 이용한 아이러니이다. 인간번역에서는 이를 ‘her dear husband (사랑하는 남편)’로 번역하여 형편없는 남편이라는 아이러니의 효과를 살렸다. 구글은 절약한다는 뜻의 ‘thrifty’를 사용해서 영어권에서 아이러니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benevolent and well-behaved, so she pays for her thrifty husband(그녀는 자애롭고 품행이 바르기 때문에 검소한 남편을 위해 대금을 치른다)’라는 표현은 맥락상 아주머니가 자애로워서 알뜰한 남편을 대신해 지불을 한다는 의미에 가까워 보인다. 챗GPT도 검소하다는 의미의 ‘frugal’을 썼으나 아주머니가 ‘odd jobs(허드렛일)’를 하는 것으로 표현하여 대조적인 의미에서 아이러니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근근이 살아간다는 뜻의 우리말인 ‘목에 풀칠하다’의 의미 전달에 어색한 부분이 있었지만 아이러니의 측면에서 볼 때 문장의 맥락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챗GPT 번역물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실마리를 제시했을 때 번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표 2> 번역 변화 1(ST: 치숙)

ST1	우리 아주머니가,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어질고 얌전해서 <u>그 알뜰한 남편 양반</u> 받드느라 샅바느질이야, 남편의 집 품빨래야, 화장품 장사야, 그 칩살스런 벌이를 해다가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지요.
TT-1 (GPT)①	My aunt, still she had to do odd jobs to support <u>her frugal husband</u> , who was quiet and well-behaved. She did laundry for other households, sold cosmetics, and barely scraped by, filling her throat with a bitter taste.

<p>TT-1 (GPT)②</p>	<p>여기에서 어질고 얌전한 사람은 아저씨가 아니고 아주머니이다. 아주머니의 남편을 알뜰하다고 표현한 것은 반어법으로서 진짜 알뜰하다는 뜻이 아니라 일할 생각이 전혀 없는 아저씨를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목구멍에 풀칠을 했다는 것은 굶지 않고 겨우 살아간다는 뜻이다.</p>	<p>Despite being meek and gentle, my aunt had to struggle to support <u>her lazy husband</u>. She did odd jobs like laundry and selling cosmetics for other households, barely scraping by to make ends meet.</p>
<p>TT-1 (GPT)③</p>	<p>‘치숙’은 한국의 작가 채만식씨가 쓴 소설로, 일제 강점기(1910년대~1945년)의 한국을 배경으로 한다. 이 소설은 당시 한국 여성들의 비참한 처지와 인간적인 삶을 그리고, 인텔리자(지식인)의 비극을 그리기도 한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조카 ‘나’라는 인물이 아저씨의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기 시대의 현실을 역논리와 풍자로서 보여주고자 했다.</p>	<p>Although my aunt is meek and docile, she still has to earn money by doing odd jobs such as washing clothes for others, selling cosmetics, and doing hard labor just to support <u>her frugal husband</u>. She even had to endure harsh and dangerous work to make ends meet, risking her life to the point where she could barely breathe.</p>

원문만 입력해서 나온 챗GPT 번역 결과인 TT1(GPT)①에서는 ‘어질고 얌전한’ 대상을 아주머니가 아닌 아저씨로 번역하는 오류가 있었고 앞에서 언급했듯 ‘목에 풀칠하다’를 ‘filling her throat with a bitter taste(쓴 맛으로 목을 채움)’으로 번역한 바 있다. 단어와 문장의 의미, 아이러니 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입력하기로 한 TT-1(GPT)②에서 ‘어질고 얌전한’ 대상이 아주머니라는 점과 ‘알뜰한 남편 양반’에서 아이러니가 사용된 점, ‘목구멍에 풀칠’한다는 표현의 의미 정보를 제시한 결과, 실마리를 반영하여 ‘Despite being meek and gentle, my aunt had to(아주머니는 온순하고 유순하지만)’로 번역했을 뿐 아니라 ‘lazy husband(게으른 남편)’를 부양하기 위해 온갖 허드렛일을 했다고 번역한 것을 확인하였다. ‘목구멍에 풀칠’을 했다는 표현도 ‘barely scraping by to make ends meet(생계를 위해 근근이 살아감)’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텍스트의 배경과 인물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 TT-1(GPT)③에서는 원문이 소설 『치숙』의 일부인 사실과 배경이 된 시대 상황 및 작가의 의도 등을 입력하

였다. 그 결과, 앞서 제시했던 ‘그 알뜰한 남편 양반’이란 표현이 아이러니라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의미를 풀어쓰지 않고 원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어적 아이러니 전략을 취한 것인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다시 ‘frugal husband’라고 번역한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 문장은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She even had to endure harsh and dangerous work to make ends meet, risking her life to the point where she could barely breathe(아주머니는 생계를 위해 가혹하고 위험한 일까지 견뎌야 했고, 숨이 막힐 정도로 목숨을 걸었습니다)’라고 번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2 자신에 찬 무지나 순진의 요소

〈표 3〉 번역 비교 2(ST: 치숙)

ST-2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그걸 하다,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ST-22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덕이라더냐 그걸 하다,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개정판)
TT-2(H)	My uncle? You mean that fine gentleman who married my father's cousin, the man they put in jail when he was younger on account of that darned <u>socialism</u> , or <u>scotchalism</u> , or whatever you call it, the one who's laid up with tuberculosis?
TT-2(G)	That's my uncle. Oh, that geoshiki, what was it for a while? It was his thing, <u>socialism</u> , or <u>makgeolli</u> .
TT-22(G)	That's my uncle. Oh, that geoshiki, what was it in those years? His thing, <u>socialism</u> , or <u>virtue</u> ?
TT-2(GPT)	It was what our uncle said. Oh, that Geseki guy, he was so obsessed with something back in the day, <u>whether it was socialism or makgeolli</u> , that he ended up going to jail for it. Our noble uncle from the countryside who suffered from a respiratory disease and lay in bed.
TT-22(GPT)	Our uncle used to say that. Oh, that big shot, what is he, that thing from back in the day, <u>is it socialism or something, or a crazy fanatic</u> ? That guy did that and ended up serving time in prison, and after he was released, he suffered from a serious illness and lay in bed, our wealthy aunt's husband.

<표 3>에 등장하는 화자 본인은 아저씨를 낮추어 보며 똑똑한 척 자부하지만 실로 무지한 인물로서 풍자의 대상이다. ST-2의 ‘막걸리라더냐’가 ST-22 개정판에서 ‘막덕이라더냐’로 수정되었는데 마르크스주의자를 낮춰 부르는 말이다. 화자는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막걸리와 막덕조차 구별하지 못할 만큼 무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우선 인간 번역에서는 ‘scotch(스카치)’와 ‘socialism(사회주의)’을 합성한 ‘scotchchalism’을 사용함으로써 아저씨를 비꼬고 있는 화자의 무식함까지 드러내고 ‘막걸리’가 주는 풍자적인 느낌까지 고루 살리고 있다. 구글은 ‘막걸리’를 그대로 음차하여 쓰거나 ‘막덕’의 의미가 아닌 ‘덕’의 의미로 ‘virtue’를 썼다. 챗GPT는 ST-2는 음차, ST-22는 ‘socialism or something, or a crazy fanatic?’(사회주의라더냐, 미친 광신도라냐)’으로 번역하여 원문에 가까우면서도 화자가 아저씨를 비꼬는 의도를 잘 살렸다.

<표 4> 번역 변화 1(ST: 지속)

ST2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나 그놈의 것, <u>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u> 그걸 하다,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TT-2 (GPT)①	It was what our uncle said. Oh, that Geseki guy, he was so obsessed with something back in the day, whether it was <u>socialism or makgeolli</u> , that he ended up going to jail for it. Our noble uncle from the countryside who suffered from a respiratory disease and lay in bed.	
TT-2 (GPT)②	‘말이지요’는 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에 대한 설명을 위해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어(I mean, you know, you see, uh, that is, I say, See what I mean?)다. ‘당년’은 ‘일이 있는 바로 그해’를 뜻하고, ‘오촌(五寸)’은 촌수가 5촌인 친척을 말한다. ‘거시기’는 ‘하려는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가 거북할 때 쓰는 군소리’로 전라도에서 흔히 쓰는 말이다. 또 이 소설에서 화자가 ‘막걸리’라고 쓴 표현은 당시 ‘마르크스주의자’를 뜻하는 ‘막	Well, you know, our old man, that one who used to go around mumbling when he couldn't remember what to say or had trouble speaking up quickly, was into something back in the day - some sort of <u>socialism or maybe makgeolli</u> , I'm not sure. After he got out, he suffered from a lung disease and relied on our fifth cousin, who was barely a relative, to take care of him.

	<p>덕'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화자는 '사회주의'와 '막덕'을 구별 못하고, 그 단어조차 '막덕'인지 '막걸리'인지 헷갈릴만큼 무식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아이러니 표현이다.</p>	
<p>TT-2 (GPT)③</p>	<p>(제안한 설명 내용 빼고 원문만 번역 요청함) 채만식 소설 '치숙'의 일부로, 화자의 아저씨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징역 살고 나왔는데 폐병을 얻어 앓고 있다는 내용이다.</p>	<p>Our uncle, you know. Oh, that guy who used to hesitate when he couldn't think of what to say, back in the day. Was he a socialist or a makgeolli drinker, he couldn't tell. He went to jail for it and came out, only to suffer from a lung disease and lie down in bed, our distant uncle from Ochon.</p>

TT-2(GPT)②에서는 '말이지요', '당년', '오촌(五寸)', '거시킴'의 뜻과 본문에서 쓰인 '막걸리'의 의미와 '막덕'인지 '막걸리'인지 헷갈릴만큼 무식한 화자를 풍자하기 위한 아이러니 표현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여기에서 단어의 의미를 부가 설명하였으므로 '막걸리'를 '막덕'이라고 바꾼 개정판 TT-22가 아닌 '막걸리'가 사용된 TT-2를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말이지요'를 TT-1(GPT)①에서는 'what our uncle said(우리 아저씨가 한 말)'로 번역했다면 TT-2(GPT)②에서는 'Well, you know(있잖아요)'로 정정되었으나, '거시킴'을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풀어써서 'he couldn't remember what to say or had trouble speaking up quickly(아저씨는 할 말을 기억 못하거나 빨리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로 번역하기도 했다. '막걸리'의 경우, 적절한 표현으로 번역하지 못하고 그대로 음차했지만 'maybe makgeolli, I'm not sure(막걸리라던가 글썄 잘 모르겠습니다)'로 번역함으로써 화자의 무지함을 드러내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잘 반영하였다. 아이러니는 잘 살렸지만 '오촌(五寸)'의 의미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촌 고모부'도 'fifth cousin(오촌)'으로 번역한 것을 확인하였다. TT-2(GPT)③의 결과를 얻은 이후에 '오촌 고모부'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재차 제시했음에도 아저씨를 돌봐주는 'cousin(사촌)' 또는 'relative(친척)'으로 번역하거나 해당 단어에 대한 설명이 거듭되면 마치 앞에서 제시한 정보가 누락된 것처럼 기타 표현의 번역까지 회

귀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제시한 정보를 번역에 포함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TT-2(GPT)③에서는 제시된 정보는 참고만 하고 이해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문만 번역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텍스트 내용을 요약 제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거시기’ 번역을 TT-2(GPT)②에서 제시했던 설명을 덧붙여 ‘guy who used to hesitate when he couldn’t think of what to say, back in the day(당시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던 사람)라고 표현했으며, ‘막걸리’를 ‘makgeolli drinker’로 번역하는 등 회귀 현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자신에 찬 무지나 순진의 요소에 해당하는 또 다른 아이러니 표현과 그에 대한 번역문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번역 비교 3(ST: 지속)

ST-3	<p>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같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 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p> <p>내지인 학교래야지 최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를 버려 놓거나 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최선말은 짝 견어치우고 국어만 쓰지요. 이렇게 다아 생활법식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p>
TT-3(H)	<p>A wife from the <u>home country</u> – that’s only for starters. I’ll change my name to <u>home-country</u> style, same with house, clothes, food, I’ll give my children Japanese names and send them to a Japanese school here.</p> <p><u>Japanese schools</u>, they’re the thing. Chosŏn schools are dirty – <u>just perfect for turning out rotten kids</u>. And I’m going to kiss the Chosŏn language goodbye and use only <u>the national language</u>. Because once I’ve taken up home-country manners I’ll be able to put together a lot of money, just like a home-country man.</p>
TT-3(G)	<p>And it’s not just marrying a woman, you change your name to a native’s name, live in a <u>native’s house</u>, wear clothes and eat in the same way, and send your children to native schools with <u>native names</u> …</p> <p>It should be my <u>hometown</u> school, but the <u>sin line</u> school is sloppy and <u>suitable for abandoning children</u>. And I also get rid of the sinful words and only use the <u>Korean language</u>. I have to do it like an <u>in-law</u> from the start of my life in order to save money like an</p>

TT-3(GPT)	<p>in-law.</p> <p>And it's not just about marrying a woman and <u>registering</u> her as my spouse, but also using my own <u>registered</u> name for all legal documents, living in a house <u>registered</u> under my own name, wearing clothes that I registered, eating food <u>registered</u> under my name, and even giving my children names <u>registered</u> under my own name and sending them to schools <u>registered</u> under my own name ... Of course, it's much better to send them to a <u>registered</u> school, rather than risking them being thrown away by an unregistered school. And I'll get rid of all unnecessary words and only use <u>Korean language</u>. This way, starting from my way of life, I'll have to live like a registered person in order to make money like a <u>registered</u> person.</p>
-----------	--

자신에 찬 무지나 순진의 요소는 아이러니의 효과는 물론 희극적인 효과를 높인다. 『치숙』에서 ‘나’는 본인이 똑똑하고 ‘아저씨’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은 ‘나’다. 이처럼 자기 모순적인 서술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다. 본문에서 ‘내지’가 뜻하는 것은 ‘외국이나 식민지에서 본국을 이르는 말’이다. 화자는 스스로 조선인이면서 일본을 내지로, 일본어를 내지어로 여기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을 이해한 인간번역에서는 ‘내지’를 ‘일본’으로 정확히 인지하여 번역하되 아이러니를 살리기 위해 ‘home country’ 혹은 ‘national language’ 등을 사용하였다. 구글은 ‘내지’를 ‘native(현지인)’를 사용하여 번역했으며 문장 내에서 일본 학교를 의미하는 ‘내지인 학교’를 ‘hometown school’로, ‘죄선 학교’를 ‘sin(죄) line(선) school(학교)’로 번역하였으며, 이와 일맥상통하게 ‘죄선말’을 ‘sinful words’로 번역하는 큰 오류를 범했다. 또한 일본어의 의미로 쓰인 ‘국어’를 ‘Korean language’로 번역하였다. 다음 문장에서는 ‘내지’를 ‘in-law’로 번역하여 역시 통일성과 의미를 놓치는 것을 발견했다. 챗GPT는 전반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했으나 ‘내지’를 모두 ‘registered’로 해석하였으며 ‘죄선말’을 ‘unnecessary words(불필요한 말)’로 번역하여 어감은 살리되 다소 급진적인 번역을 보였다. ‘국어’는 역시 ‘Korean language’로 번역하여 맥락의 진의를 살리지 못했다.

또한 ST-3에서 ‘아이를 버려 놓거나 꼭 알맞다’는 것은 ‘아이를 버려놓기 마련’이라는 뜻이므로 인간번역은 ‘just perfect for turning out rotten kids(아이

를 버려놓기에 딱 알맞은)로 아이러니를 적절히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했으나 구글은 ‘suitable for abandoning children(아이를 유기하기에 알맞은)’으로 번역하여 ‘버리다(spoil)’의 의미 전달의 측면에서는 오류가 있었지만 ‘suitable for’를 사용해서 아이러니의 효과는 살렸다고 판단된다. 챗GPT의 경우, ‘It’s much better (중략) rather than risking them being thrown away(버림받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야 낫다)’로 번역하여 역시 ‘버리다(spoil)’를 ‘abandon’과 유사한 의미로 잘못 전달하고 있고 아이러니를 통한 풍자 효과도 찾아보기 힘들다.

〈표 6〉 번역 변화 3(ST: 지속)

<p>ST3</p>	<p>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같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 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내지인 학교래야지 죄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를 버려 놓거나 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죄선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지요. 이렇게 다아 생활범식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p>	
<p>TT-3 (GPT)①</p>	<p>And it’s not just about marrying a woman and <u>registering</u> her as my spouse, but also using my own <u>registered</u> name for all legal documents, living in a house <u>registered</u> under my own name, wearing clothes that I <u>registered</u>, eating food registered under my name, and even giving my children names <u>registered</u> under my own name and sending them to schools <u>registered</u> under my own name... Of course, it’s much better to send them to a <u>registered</u> school, rather than risking them being thrown away by an <u>unregistered</u> school. And I’ll get rid of all <u>unnecessary words</u> and only use <u>Korean language</u>. This way, starting from my way of life, I’ll have to live like a <u>registered</u> person in order to make money like a <u>registered</u> person.</p>	
<p>TT-3 (GPT)②</p>	<p>여기에서 ‘내지’는 ‘일본’을, ‘죄선’은 ‘조선’을 뜻한다. 화자 본인은 조선인이면서 일본을 내지로, 일본어를 내지어로 여기는 상황으로 아이러니의 효과가 나타난다.</p>	<p>And not only marrying a woman, but also adopting the <u>Japanese</u> culture, taking on a <u>Japanese</u> name, living in a <u>Japanese-style</u> house, wearing <u>Japanese</u> clothes, eating <u>Japanese</u> food, and even naming our children with <u>Japanese</u> names and sending them to <u>Japanese</u> schools ... A proper school, not like those subpar ones where they just</p>

		abandon the child. And I will also discard all other languages and only use <u>Korean</u> . By living this way, just like a <u>Japanese</u> person, I will be able to accumulate wealth like them.
TT-3 (GPT)③	수록된 부분은 1인칭의 화자가 자신의 이상과 계획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화자는 삼십 년 동안 장사해서 십만 원을 모아 일본인 규수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한다. 그는 결혼도, 이름도, 집과 옷, 밥까지 일본식으로 살겠다고 친일파의 면모를 보이며 왜곡된 역사의식을 보인다.	And not only marrying a <u>Japanese</u> woman, but also changing my name to a <u>Japanese</u> name, living in a <u>Japanese-style</u> house, wearing <u>Japanese</u> clothes, eating Japanese food, and even giving our children names that fit into the <u>Japanese</u> culture. I mean, even sending our kids to a school that aligns with their background because <u>it wouldn't be appropriate to just abandon them in a school that deviates from the Japanese standard</u> . And I'll discard the Korean language and solely use <u>Japanese</u> . From our way of life to everything else, I must emulate a <u>Japanese</u> person in order to accumulate wealth just like them.

<표 6>의 번역 결과를 비교해 보자면 ‘내지인’의 의미를 제시한 TT-3(GPT) ②에서 ‘내지’를 모두 ‘Japanese’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어’를 여전히 ‘Korean’으로 번역하였다. TT-3(GPT)③에서는 텍스트상 역사의식에 무지한 화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의 배경을 간단하게 제시한 결과, ‘내지인’과 ‘국어’를 화자의 의도에 따라 ‘Japanese’로 번역한 것을 발견하였다.

### 4.3 거리감의 요소

한미애(2011: 267)는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등장인물의 말을 들을 때 아이러니의 효과가 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술자가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관찰하고 그 인물의 말을 읊기는 과정에서 희극적인 요소를 강화시

키면서 아이러니 효과가 커지는 것이다. 특히 그 말이 비속어일 때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면서 아이러니의 효과를 더 강화할 수 있다.

〈표 7〉 번역 비교 4(ST: 태평천하)

ST-4	윤직원 영감은 것처럼 부민관의 명창대회로부터 돌아와서, 대문 안에 들어서던 길로 이 분풀이, 저 화풀이를 한데 얹어 그 알뜰한 삼남이 녀석을 데리고, 머느리 고씨더러, <u>짜</u> 찢을 년이니 오두가 나서 그러느니, 한바탕 귀먹은 욱을 걸찍하게 해주고 나서야 적이 직성이 풀려, 마침 또 시장도 한 판이라 의관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sup>3)</sup>
TT-4(H)	On his return from the Festival of Great Singers, Master Yun entered the house and, in the company of the witty Samnam, freely vented his accumulated anger by calling <u>his daughter-in-law names behind her back</u> .
TT-4(G)	Yoon Ji-kwon, after returning from the master singing contest of Bumingwan, put this resentment and that resentment together on the way he entered the gate, took the thrifty three boys, and <u>told his daughter-in-law, Mr. Ko, that he would be torn apart</u> . It wasn't until after I cursed at him that the enemy was relieved, and as the market was also in the middle of the day, I took off my clothes and went into the living room.
TT-4(GPT)	Yoon Jik-won, inspired by his recent success at the prestigious Bumin Hall competition, returned and entered through the main gate, combining his frustrations and anger into one. With his cunning wit, he took his clever third son and confronted his daughter-in-law, scolding her fiercely, <u>calling her a shameless woman who deserved to be torn apart</u> . After satisfying his pent-up anger with a torrent of harsh insults, his anger subsided, and coincidentally, it was also time for a business deal at the market. He put aside his official duties, entered the inner quarters, and went into his private chamber.

<표 7>의 ST-4에서도 윤 영감이 사용한 비속어 ‘짜 찢을 년’을 관찰자가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번역에서는 이를 번역하지 않아 아이러니의 효과가

3) 한미애(2015) 연구에서는 ST가 ‘욕을 걸찍하게 해주고 나서야’로 끝나지만 완성된 문장으로 번역하기 위해 소설 원문에 있는 ‘적이 직성이 풀려, 마침 또 시장도 한 판이라 의관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를 추가했다.

체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구글 번역에서 주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곤 하는데 이번에도 ‘삼남이’를 ‘the thrifty three boys(검소한 세 명의 소년들)’로, 며느리를 ‘Mr. Ko’로 번역하는 오류는 있었지만 ‘짜 찢을 년’을 ‘told his daughter-in-law, Mr. Ko, that he would be torn apart(며느리 고씨에게 갈기 갈기 찢어질 놈이라고 말했다)’라고 번역하여 언어적 아이러니의 효과는 그대로 가져왔다. 챗GPT는 ‘calling her a shameless woman who deserved to be torn apart(갈기갈기 찢겨 마땅한 파렴치한 여자라며)’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8〉 번역 변화 4(ST: 치숙)

ST-4	윤직원 영감은 것처럼 부민관의 명창대회로부터 돌아와서, 대문 안에 들어서던 길로 이 분풀이, 저 화풀이를 한데 얹어 그 알뜰한 삼남이 녀석을 데리고, 며느리 고씨더러, 짜 찢을 년이니 오두가 나서 그러느니, 한바 탕 귀먹은 욕을 걸찍하게 해주고 나서야
TT-4 (GPT)①	Yoon Jik-won, inspired by his recent success at the prestigious Bumin Hall competition, returned and entered through the main gate, combining his frustrations and anger into one. With his cunning wit, he took his clever third son and confronted his daughter-in-law, scolding her fiercely, <u>calling her a shameless woman who deserved to be torn apart</u> . After satisfying his pent-up anger with a torrent of harsh insults, his anger subsided, and coincidentally, it was also time for a business deal at the market. He put aside his official duties, entered the inner quarters, and went into his private chamber.
TT-4 (GPT)②	‘영감’은 ‘나이가 많아 중년이 지난 남자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이다. ‘분풀이’와 ‘화풀이’는 ‘화난 감정을 풀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다’라는 뜻이다. ‘짜 찢을 년’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여 윤 영감의 목소리나 관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등장인물의 말을 들음으로써 아이러니 효과가 나는 장면이다. Yoon Jik-won, an esteemed gentleman of mature age, returned from the renowned Bumin Hall competition and walked through the main gate, carrying with him his frustrations and anger. He cleverly combined them, taking along his astute third son. He then confronted his daughter-in-law, using vulgar language, <u>accusing her of being a despicable woman who deserved to be torn apart</u> . He unleashed a torrent of scathing insults, allowing his suppressed

		<p>anger to be vented. Finally, when his anger subsided, coincidentally, it was time for a business deal at the market, which helped him regain his composure. He set aside his official duties, entered the inner quarters, and retired to his private chamber.</p>
<p>TT-4 (GPT)③</p>	<p>[태평천하]는 민족의 현실이나 사회적 정의의 문제와는 아랑곳없이 가족의 이기적 번성만을 추구하던 윤직원(윤두섭) 일가의 몰락과 해체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1930년대 후반 친일 지주 계층의 반사회적이고 반민족적인 욕망과 행위를 판소리 투의 풍자적인 어조로 비판한 소설이다. 놀부형 인물 계보에 속하는 윤직원 원은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는 말 따위를 서슴지 않을 정도로 반사회적인 인물이다. 그는 한마디로 자기와 가정의 경제적 번성을 유지, 확대하고 애욕을 실현하기 위해 매우 탐욕스런 행위를 한다. 이 윤직원 가의 재산 형성은 아버지 윤용규 대와 윤직원 대에 걸쳐 이루어진다. 전대 윤용규는 관부식꾼으로 투전장이나 돌아다니며 개평꾼이나 뜯던 존재였으나, “난데없는 돈 이백 냥”이 생긴 후 그것을 밀천 삼아 돈벌이에 성공한다. 그가 관권보다는 금권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바야흐로 돈과 경제가 중시되는 세상이 오고 있음을 삶의 후각으로 알아차린 모습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그는 신분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했다.</p>	<p>Yoon Jik-won, who had just returned from a famous competition of local officials, combined his frustration and anger on the way into the gate. With his shrewdness, he took the third son and, after scolding his daughter-in-law, who he thought was the cause of his anger, he cursed her severely to relieve his frustration. After returning from the prestigious competition at the Bumin Hall, Yoon Jik-won, the elder of the family, vented his frustrations and anger along the path leading to the main gate. Adding to his outburst, he grabbed his clever three sons and scolded his daughter-in-law, <u>saying she was a wicked woman who deserved to be torn apart.</u> He showered her with harsh words, finally relieving his pent-up anger. Coincidentally, feeling hungry at that moment, he decided to enter the inner chambers, thinking it was a good time for a meal.</p>

TT-4(GPT)②에서는 앞서 ‘inspired’로 오역했던 ‘영감’의 뜻(나이가 많아 중

년이 지난 남자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과 ST에서 ‘시장’의 뜻을 입력하고 아이러니가 쓰인 것에 대해 설명했다. 그 결과, 윤직원 영감을 ‘an esteemed gentleman of mature age(나이 지긋한 존경 받는 신사)’로 번역하여 원문의 의미에서 벗어났다. 아이러니 번역의 비교 대상인 ‘짜 찢을 년’은 ‘accusing her of being a despicable woman who deserved to be born apart(갈기갈기 찢겨 마땅한 비열한 여자라고 비난)’로 번역함으로써 며느리를 나무라는 윤직원 영감의 말을 더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TT-4(GPT)③에서는 소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 윤직원 영감에 대한 인물 설명을 제시했다.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영감’을 ‘the elder of the family’로 번역하여 TT-4(GPT)②에 나타난 긍정적인 의미를 뺀 것을 확인하였다. ‘짜 찢을 년’은 ‘saying she was a wicked woman who deserved to be torn apart(갈기갈기 찢을 사악한 년)’으로 의미를 살려 전달했고, ‘He showered her with harsh words(그는 그녀에게 거친 말을 퍼부었다)’라는 표현을 써서 윤직원 영감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TT-4(GPT)③은 텍스트 층위로서 인물과 배경 설명을 제시하는 단계이지만 앞서 반영되지 않은 ‘시장’의 뜻을 바로잡기 위해 의미를 한 번 더 제시한 결과, ‘의관을 벗고’라는 의미는 생략한 채 ST에 없는 ‘thinking it was a good time for a meal(마침 식사할 시간이라 여겨)’라는 표현을 부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챗GPT의 상호작용 능력에서 비롯된 오류로서, 사용자의 의도와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으로 인해 과도한 의미의 번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4.4 미적 요소

〈표 9〉 번역 비교 5(ST: 지속)

ST-5	공부를 다 마치고 오더니만 그담에는 그놈의 짓에 디립다 발광해 다니면서 명색 학생 출신이라는 딴 여편네를 얻어 살았지요. 그 여편네는 나도 몇 번 보았지만 쌍판대기라고 별반 쓸 수도 없이 생겼습디다. 그 인물로 남의 첩이야? 일색 소박은 있어도 박색 소박은 없다더니, 사실 소박맞은 우리 아주머니가 그 여편네께다 대면 월등 예뻐다우.
TT-5(H)	No sooner did he finish his studies and come home than he went nuts over that damned scotchism and got himself another woman, one of those “educated women,” you know? I’ve seen her a few times and that puss of hers is not about to catch anyone’s attention.

	Beats me how a woman who looks like that can be someone's mistress. They say pretty women are jilted but ugly women aren't, and it's a fact that if you stack up my aunt against that woman, then my aunt is prettier by a long shot.
TT-5(G)	I came back after finishing my studies, but the next day, I went crazy because of his behavior and lived with another woman who was a famous student. I've seen that woman several times, but she doesn't look much like a pair of twins. She is that person, is she someone else's concubine? She said that she had one-color simplicity, but not bland simplicity, and in fact, my simple-minded aunt was very pretty when she met her.
TT-5(GPT)	After finishing his studies, he ended up marrying some woman and living off her while going around acting like a big shot. She was a supposed 'student's wife' but I've seen her a few times and she's nothing to write home about. I've heard people say things like 'there's no such thing as an ugly woman, only a poor one' but let me tell you, there's no saving this one. She might have had some simplicity to her, but she was far from being pretty. Our own mother, who was a truly simple woman, looked stunning compared to that woman.

아이러니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현재시제나 비속어, 지역방언 등을 통한 구어체 서술이 사용되는데 이를 미적 요소라고 한다(한미애 2015: 189). 서술자가 구어적 매체를 통해 독자와의 유대감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서술하는 대상에 대한 풍자성을 높일 수 있다. ST-5에서는 소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과거시제가 아닌 현재시제를 통해 독자들과의 유대감을 이루어 풍자의 효과를 강화하는 예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비속어를 빈번히 사용함으로써 구어적인 느낌을 강하게 풍긴다. 이와 같은 작가의 의도를 번역문에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비교해보면, 인간번역은 ST와 마찬가지로 현재시제를 쓸 뿐 아니라 구어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you' 혹은 'you'가 생략된 명령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nut', 'puss' 등의 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원문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앞서 화자의 무지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했던 합성어 'scotchism'도 눈에 띈다.

구글은 현재시제나 속어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미 오류를 범했다. '소박맞은 우리 아주머니가 그 여편네께다 대면 월등 예뻐다'라는 아이러니적

인 표현을 ‘my simple-minded aunt was very pretty when she met her(소박한 성격의 아주머니는 그녀를 만났을 때 매우 예뻐다)’이라고 번역함으로써 의미와 의도를 모두 놓쳤다.

챗GPT는 ‘오더니만 ~ 얻어 살았다’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ended up’을 쓰는 등 원문에 가까운 구문 해석 능력과 번역 기술을 보였다. 하지만 여편네를 얻어서 산 것을 두고 ‘living off her(여편네에게 얹혀살았다)’라던가 ‘발광해 다녔다’를 ‘acting like a big shot(거물 행세를 하고 다녔다)’는 등 ST가 의도하지 않은 뜻으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비꼬는 투의 ‘명색 학생 출신인 여편네’는 ‘student’s wife’로 번역했고, 역접 ‘but’도 잘못 쓰여 있다. 그리고 구글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신중 표현이 난무했던 ‘쌍관대기라고 별반 출 수도 없이 생겼습디다’는 ‘she’s nothing to write home about(특별히 내세울 것 없이 평범한)’이라고 써서 속어는 살리지 못했지만 의미를 비교적 가깝게 전달했다. 또 현재시제를 살리는 데에는 실패했으나 ‘let me tell you(들어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구어적 느낌을 강화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10〉 번역 변화 5(ST: 지속)

ST5	공부를 다 마치고 오더니만 그답에는 그놈의 짓에 더럽다 발광해 다니면서 명색 학생 출신이라는 만 여편네를 얻어 살았지요. 그 여편네는 나도 몇 번 보았지만 쌍관대기라고 별반 출 수도 없이 생겼습디다. 그 인물로 남의 첩이야? 일색 소박은 있어도 박색 소박은 없다더니, 사실 소박맞은 우리 아주머니가 그 여편네께다 대면 월등 예뻐다우.	
TT-5 (GPT)①	After finishing his studies, he ended up marrying some woman and living off her while going around acting like a big shot. She was a supposed ‘student’s wife’ but I’ve seen her a few times and she’s nothing to write home about. I’ve heard people say things like ‘there’s no such thing as an ugly woman, only a poor one’ but let me tell you, there’s no saving this one. She might have had some simplicity to her, but she was far from being pretty. Our own mother, who was a truly simple woman, looked stunning compared to that woman.	
TT-5 (GPT)②	‘그놈의 짓’은 사회주의 운동을 뜻하고, 그 여편네는 본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를 가리킨다. ‘일색’은 뛰어난 미인을, ‘박색’은 아주 못생긴 얼굴 또는 그런 사람을 뜻	After finishing his studies, he ended up marrying some woman and living off her while going around acting like a big shot. She wasn’t the head of the household

	<p>한다. ‘소박’은 처나 첩을 박대한다는 뜻의 단어다. 이 소설에서 화자는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듯 대화체와 현재시제를 사용해서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p>	<p>but some other woman. They called her ‘il-saek’ which means an outstanding beauty, but ‘bak-saek’ which means a really ugly face would’ve been more appropriate. ‘Sobaek’ is a term for a mistress who’s despised. I’m telling you, our mother who was a truly plain woman looked stunning compared to that woman. It’s not just about her looks, though. He went around glowing with his accomplishments from the socialist movement and acted like he was something special. But what did he really accomplish? Nothing.</p>
<p>TT-5 (GPT)③</p>	<p>소설의 배경이 된 시대는 일제 강점기(1910년대~1945년)로 당시 한국 여성들은 비참한 삶을 살곤 했다. 당시 지식인이었던 아저씨가 다른 지식인 여성을 만나 본처를 버린 것을 화자인 ‘나’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다.</p>	<p>After finishing his studies, the gentleman got involved in the socialist movement and ended up living with a woman who claimed to be a former student. I’ve seen that woman a few times, and to be honest, she wasn’t particularly attractive. How can she be considered someone’s concubine? They say she may be exceptionally beautiful, but she lacks the genuine simplicity. In truth, our modest mother, who embodies true simplicity, appeared far more beautiful when facing that woman.</p>

TT-5(GPT)②에서는 ‘그놈의 짓’, ‘일색’, ‘박색’, ‘소박’의 뜻을 설명했다. TT-5(GPT)①에서는 ‘그놈의 짓’을 그저 망나니짓을 하고 다닌다는 뜻으로 ‘while going around acting like a big shot’이라고 번역했었다. 실상 ‘사회주의 운동’을 뜻하는 것이기에 해당 정보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에 반영되지 않고 여전히 ‘while going around acting like a big shot’으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일색과 박색의 의미를 살려서 원문을 번역해 달라는 요청을 제대로 인

지하지 못하고 단어의 뜻을 풀어서 쓰고 번역한 것 또한 확인하였다. 다만 아이러니 기법 중에서 미적 요소에 해당하는 구어체와 관련해서는 정보에 충실하여 ‘I’m telling you’나 문장 말미에 ‘though’를 사용하고, 질문과 대답의 형태를 통해 구어체 효과를 낸 것을 발견했다. TT-5(GPT)② 결과를 얻은 후 수차례 ‘일색 소박은 있어도 박색 소박은 없다더니’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챗GPT는 이를 번역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번역해서 삽입하는 양상을 보였고, ‘소박’은 ‘simple’로 번역하여 반복해서 원문에서 쓰인 ‘소박’의 의미와 텍스트의 의미까지 설명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용어가 현대에서 잘 쓰이지 않는 데다 챗GPT 데이터에 없는 단어라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기계번역 활용방안과 마찬가지로 에디팅한 텍스트를 입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5. 결론

이상으로 채만식의 소설 『치숙』과 『태평천하』에 대한 인간번역, 구글 번역, 챗GPT 번역 결과를 비교하면서 챗GPT의 아이러니 번역 활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미애(2015)가 뮤엑(Muecke 1970)의 분류법을 참고하여 제안한 네 가지 요소, 즉 현실과 외관의 대조, 자신에 찬 무지나 순진의 요소, 거리감의 요소, 미적 요소를 바탕으로 채만식의 단편 소설에 나타난 아이러니에 대한 번역을 비교해 보았다. 아이러니는 문학번역 중에서도 복합적 인식과 해석 능력이 고도로 요구되는 까닭이다. 우선 인간번역과 기계번역(구글), AI번역(챗GPT 번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분석한 후, 챗GPT에 단어 및 문장 층위, 텍스트 층위별로 부가 정보를 제시하여 번역에 변화가 나타나는지, 번역의 질이 제고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기존의 기계번역과 비교했을 때 활용 방법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계번역은 에디팅 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면, 챗GPT는 원문으로 번역 결과를 얻은 후라도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하여 번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현재로서는 기계번역 및 AI번역보다 인간번역의 완성도가 높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나, AI번역의 발전 정도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완성도 높은 기준에 따른 비교, 분석이 필요했기에 인간번역과 비교하는 과정을 포함시켰다. 둘째, 챗GPT의 상호작용 능력을 이용하여 번역 결과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인간번역과 기계번역의 비교 분석에 그치지 않고 챗GPT에 층위별로 용어 설명이나 아이러니 사용 여부, 텍스트의 배경 및 인물 설명 등을 제시함으로써 챗GPT 번역 결과 내에서의 품질을 다시금 비교 및 분석하였다. 문화소의 경우, 챗GPT가 주어진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번역 품질이 제고된 것을 확인하였다. 정보량이 많은 경우 이전에 제시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오역을 만들어 낼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원문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과 창의적인 번역 결과를 나타냈다. 즉, AI번역의 열등한 정도를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제시했을 때 얼마나 번역의 질이 제고되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셋째, 챗GPT의 번역에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현재로서는 챗GPT가 문화소 혹은 구어 데이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간혹 제시된 정보가 번역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하지만,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챗GPT의 번역 결과 및 활용 가능성이 향상되면 아이러니뿐 아니라 문학번역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장르에 대한 번역에도 챗GPT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예문이 근대소설에서 발췌한 것으로 구어 해석이라는 난관으로 인해 아이러니 해석의 관점으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존 연구에 국한되어 더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인간번역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한영번역만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현대 한국어 문학과 번역 비교를 위해서는 현대 한국어 문학을 선택하여 아이러니 부분을 찾아내고 분류하여 이론적으로 아이러니를 뒷받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한번역 비교를 위해서는 같은 과정뿐 아니라 원어인 차원에서의 맥락과 아이러니 해석의 추가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또 기계번역을 보다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하기 위해 에디팅 작업을 한 기계번역과 추가 정보를 제시한 챗GPT를 비교하는 연구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아이러니를 문학적 요소로만 접근했다는 점에서도 그 한계가 있다 하겠다.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계번역 중에서도 그동안 잘 다루지 않은 아이러니가 쓰인 텍스트를 구체적으로 비교했다는 점과 챗GPT 번역을 함께 비교

했다는 점, 나아가 챗GPT가 원문 의도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번역의 질을 높이고 문학번역에서 AI번역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영희 (2021) 「로버트 프로스트와 T.S. 엘리엇의 크리스마스 트리—인간번역과 기계번역 차이 연구」, 『T.S. 엘리엇 연구』 31(1): 1-21.
- 김진 (2020) 「소설 『꽃신』의 인간번역과 기계번역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 윤소영 (2019) 「역번역을 통한 기계번역의 한계와 발전 가능성 제고: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37: 13-37.
- 나병철 (1998) 「구어체 소설과 또다른 근대의 기원」, 『비평문학』 12: 196-225.
- 마승혜 (2018) 「문학작품 기계번역의 한계에 대한 상세 고찰」, 『통번역학연구』 22(3): 65-88.
- 송연석 (2018) 「기계번역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번역학연구』 19(1): 119-145.
- 이동환 (2017) 「기계번역 이후의 영미문학교육: 번역연구의 성과와 영미문학교육의 미래」, 『영미문학교육』 21(2): 221-249.
- 이준호 (2019) 「문학번역 적용을 위한 기계번역의 현주소」, 『통번역학연구』 20(1): 143-167.
- 이창수 (2021)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한 문학번역에서의 기계 번역과 인간 번역 결과물 분류 연구」, 『번역학연구』 22(1): 199-217.
- 전혜진 (2019) 「AI시대, 문학번역에서 기계번역과 인간번역 비교 분석 연구-폴 스토이의 유년시절 번역 분석을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31(1): 111-154.
- 채만식 (2004) 「치숙」, □하서명작선: 레이메이드 인생, 서울: 하서.
- 채만식 (2006) 「태평천하」, 파주: 창비.
- 최윤영 (1996) 「기계번역과 문학번역」, 『번역연구』 4: 51-61.

- 한미애 (2011) 「서술의 다양성을 번역하기: 부랑일기[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1): 263-283.
- 한미애 (2015) 「채만식의 풍자소설에 나타난 아이러니 번역 양상—『치숙』과 『태평천하』의 영역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6(5): 183-211.
- 홍승연, 윤미선, 최은경 (2022) 「기계번역과 문학번역」, 『영미연구』 56: 189-214.
- Chun, Kyung-Ja, trans. (1993) *Peace Under Heaven*, New York & London: M.E. Sharpe.
- Fulton, Bruce and Ju-Chan Fulton, trans. (2005) ‘My Innocent Uncle’, in Bruce Fulton and Youngmin Kwon (eds) *Modern Korean Fiction: An Anthology*, New York: Columbia UP.
- Hatim, Basim and Ian Maso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Harlow: Longman.
- Kamyantets, Angela (2017) ‘Translating Irony in Media Texts: A Relevance Theory Perspective’,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18(2): 261-78.
- Moneva, Ángeles Ruiz (2001) ‘Searching for Some Relevance Answers to the Problems Raised by the Translation of Irony’, *Revista Alicantina de Estudios Ingleses* 14: 213-47.
- Muecke, Douglas Colin (1970) *Irony*, London: Methuen.
- Wilson, Deirdre and Dan Sperber (2012) *Meaning and Relevance*, New York: Cambridge UP.

<인터넷 자료>

1. GPT-3 모델을 사용한 소설 쓰기를 주제로 한 연구:  
“GPT-3 Creative Fiction: An Exploratory Study”(2023, <https://gwern.net/gpt-3>)
2. GPT-3.5: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212>
3. GPT-4: <https://openai.com/gpt-4>

[Abstract]

## A Study of Translatability of Irony in ChatGPT

Soojung Park & Eunsil Choi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advent of ChatGPT is making waves in various fields. The interactive AI can perform tasks commonly connected with human cognitive activities including playing games, analyzing medical data, and summarizing texts. In particular, the creativity of ChatGPT, which allows it to draw a painting or write a song, is a starting point for this study because translation is considered to be a creative work. Therefore, this study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ChatGPT can translate a literary work, especially irony. Among the literary devices, irony is particularly difficult to translate because it requires a high level of complex perception and interpretation. Another reason why irony translation is difficult is that translators have difficulty choosing a translation strategy between the following two options: to literally translate irony to give readers a chance to find it, or to paraphrase irony to convey the intention of a writer. Until now, machine translation has had many difficulties not only in identifying irony, but also in translating it with an appropriate strateg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if ChatGPT can be utilized to translate irony.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we follow two processes. First, we take a source text and its target texts from human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using Google, and AI translation using ChatGPT, and then analyze them. The results show that ChatGPT understands and translates the meaning and intent of the source text more deeply than existing machine translation, even though the results were not as complete as the human translation. Secondly, we provide the AI with some information at the word, sentence, and context level so that it can understand cultural elements and contexts that include irony. In some cases, even when ChatGPT gets a clue, it does

not understand or reflect the writer's intention. However, it does actively utilize the provided information and the translation quality does improve. Therefore, our conclusion is three-fold. First, machine translation and AI translation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Second, the interactive character of AI can be helpful to improve translation quality. And lastly, AI translation can be utilized to translate irony.

Keywords: ChatGPT, literary translation, irony, information provision, translation comparative analysis, machine translation

주제어: 챗GPT, 문학번역, 아이러니, 정보 제시, 번역 비교 분석, 기계번역

박수정(1저자)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전공 석사과정생

withhyssop@gmail.com

관심 분야: 비교문학, 번역 보조 도구

최은실(교신저자)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전공 조교수

translator.ces@gmail.com

관심 분야: 번역교육, 통역교육, 기계번역, 교수역량

논문 투고: 2023년 5월 17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6월 3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6월 18일

게재 확정: 2023년 6월 22일